민주 당권주자 본격 레이스…'대세론 굳히기' vs '이재명 대항마'

이 "민생·통합" 박·강 "반전 총력전"…강원·PK권리당원 오늘 투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호남 최고위원 주자 송갑석 총력 지원나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주자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8·28 전당대회 지역경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남 최고위원 주자로 나서고 있는 송갑석 후보가 첫 지역 경선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2일 저녁 강원에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민생과 통합을 앞세워 '대세론 굳히기'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능한 대안야당' 로드맵을 강조하며 비전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자신의 각종 설화를 빌미로 한 두 후보의 공격에는 자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박용진·강훈식 의원은 반전의 계기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1강'인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하면서도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형세에 놓여서이다. 당장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단일화 논의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의 정치 행보를 볼 때 교집합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당 선관위가 중도사퇴자의 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키로 한 것도 단일화 무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설령 단일화가 이뤄진다 해도 투표 개시 이후라면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고위원 주자들도 첫 경선 지역인 강원·TK(대구·경북)와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기를 잡기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TK 권리당원 경선 투표는 3~5일까지 이뤄지며 6일 결과가 발표된다. 또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는 4~6일까지, 결과는 7일 발표된다. 정치권에서는 초반에 치러지는 두 곳의 경선에서 1·2위를 한 후보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며, 지역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의원의 선전 여부가 주목된다. 송 의원 측에서는 초반 레이스에서 중위권을 유지한다는 전략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송 의원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 속에서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어 험지인 강원과 TK 등에서 권리당원 표를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주에는 부산·울산·경남(13일), 충남·충북·세종(14일)의 경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송 의원에게는 불리한 경선 일정이기도 하다.

2일 강원 춘천시 G1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용진(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에선 송 의원이 초반 레이스에서는 고전하겠지만 20·21일로 예정된 전북과 광주·전남 경선은 반전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송 의원 측에서는 호남 표심의 결집과 함께 수도권 경선에서 선전, 최고위원 티켓을 따낸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호남 단일주자인 송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에 실패한다면 그 후폭풍이 지역 정치권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송 의원이 호남 단일 주자로 나서고 있지만 전반적인 판세는 결코 만만치 않다"며 "결국 호남 정치권의 결집 여부가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할 최고위원 자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尹, "취학연령 하향 여론 들어야"…교육부에 공론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가 제기되며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 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은 넉넉하다"며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기초의원 출마자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5%P 낮춰야"

이형석 의원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2일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이에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었는데, 2인~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되어 소선거구에 비해 15%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또 당선인은 득표율에 무관하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15% 미만을 득표해도 전액을 보전받는데, 낙선자에게 15% 이상 득표 요건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이상 10%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하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신활력추진본부 상임위 배정 고심

행자위·환복위 배정 의견 분분
추진위 신설·TF 구성 검토

광주시의회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신활력추진본부의 상임위 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에 신설된 신활력추진본부는 강기정 시장의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부서로 신활력총괄반과 관광도시과, 도시공원과, 친수공간과 등 4개 과로 구성됐다.

주로 환경 생태나 무등산·영산강·황룡강, 랜드마크 건축물 등 도시재생, 경제, 산업 등 도심 전반에 걸친 활력 사업을 담당한다. 특히 복합쇼핑몰 유치와 공원, 친수공간 조성, 관광 마케팅도 맡는 등 업무가 광범위하다.

신활력 추진본부가 도시 신활력 기획이 주요 업무인 만큼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부 내 도시공원·수변공원 개발 조성에 관한 사항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상임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의회는 궁여지책으로 상임위마다 2명씩 모여 있는 운영위원회가 맡거나 신활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로 다루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열릴 제309회 임시회를 앞두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활력추진본부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업무를 집중해 추진할 수 있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상임위 배정은 시의회의 영역인 만큼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신활력추진본부의 업무 영역이 여러 상임위와 겹쳐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급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